

# 임용단기 합격 후기

## 역사 이제현 선생님

과목명 | ( 역사 ) | 스터디 여부 | ( o ) | 단권화 여부 | ( o )

### 0. 서론

안녕하세요. 재수해서 이번에 2019년도 임용 역사에 합격한 합격자입니다. 소수지역 수석합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저의 수험생활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부생이었던 초수 때는 과에 마련된 독서실을 활용해서 공부했고 동기들과 함께 스터디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떨어져도 초수인데 뭐 어때라는 막연한 마음가짐과 너무나도 부족했던 준비와 노력 때문에 초수 때는 어림도 없는 점수로 불합격하였습니다. 그래도 초수 때, 어차피 떨어질 것 같으니까 각 과목별로 단권화는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각 과목마다 단권화노트를 만들면서 오히려 재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나약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초수에 붙어 버리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재수는 그냥 집으로 돌아와서 근처에 있는 독서실을 다니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 같은 지역에서 사는 과 동기가 있어서 1년 내내 함께 스터디도 진행했구요. 아침 9시에는 독서실에 들어가서 저녁 먹을 때까지 앉아 있다가 18시에 집 가서 저녁을 먹고, 20시에 다시 독서실 가서 23시에서 0시 사이에 집에 들어오는 루틴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나름대로 계획은 열심히 짜서 하려고 했으나, 모든 게 그렇듯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않더라고요. 매일 독서실에 가긴 했지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는 날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9월까지의 주말에 놀러 나가거나 집에서 푹 쉬었습니다. 9월 이후에는 뭔가 놀면 안 될 것 같은 심적 부담감에 거의 술은 먹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가 대략적인 수험생활이라고 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각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교육학

교육학 같은 경우는 학부 3학년 여름방학 때, 임용단기의 이경범 교수님의 1, 2월 강의를 수강했었습니다. 그 때는 3학년이어서 사실 임용시험에 대해 깊게 준비하지 않았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교육학 인강을 듣는다고 하길래 저도 얼떨결에 기본개념 강의만 들어보자 하고 신청해서 수강했었습니다. 물론 다른 강사들의 샘플도 들어보고 했지만, 이경범 교수님의 스타일이 저와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서 선택했던 것입니다. 강의들을 들으면서 노트 하나에 그 내용들을 정리하여 단권화를 시켰습니다. 그 두꺼운 교육학 개론서 2권을 교수님이 강조한 부분을 중심으로 최대한 압축하고 요약하여 노트에 정리하였습니다. 제가 사용한 방법은 노트 왼쪽에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적고 그 오른쪽 페이지에는 나중에 다시 정리할 때 관련된 내용이나 자료들을 첨부하는 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교수님이 주시는 핸드아웃이라던지, 처음 정리할 때 놓쳤던 부분들을 오른쪽에 정리하여 최대한 빠지는 부분 없이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작업은 수험생활을 진행하는 중에 계속적으로 추가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사실 단권화를 진행하다보면 노트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나중에는 어디에 무엇을 정리해두었는지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필기로 정리해서 그런데, 혹시 단권화를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직접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워드로 작성하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무튼 전 작성한 교육학 단권화 노트만을 활용해서 교육학을 준비했습니다. 초수 때도 교육학 점수는 생각보다 높게 나왔는데, 전공이 너무 터무니없이 나와서 불합격 했으니까 단권화 방법이 저에게는 나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천 드리고 싶은 것은 꼭 거창하게 스터디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만약 주변에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끔 만나서 교육학 관련 키워드나 내용을 즉석에서 묻고 대답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서로 다른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도 다르게 이해하고 있거나,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개념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 서로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그 개념을 질문을 통해 주고 받는 방법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2. 전공

0)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모든 과목을 단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역교론, 기타사 모두 나름대로 단권화 노트를 만들었다는 점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초수 때 좀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권화 노트만 계속 들여다 보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스스로 정리하고 요약한 내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수를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어쨌든 전공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정리를 잘 했다 하더라도 전공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재수 때는 단권화노트는 서브 개념으로 사용하고, 전공서를 다독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 1) 한국사

한국사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봐야 할 전공서도 많고요. 먼저 저는 초수 때 한통을 베이스로 하여 한국사 단권화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교육학 단권화 노트와 마찬가지로 왼쪽 페이지에는 한통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그 이후에 오른쪽 페이지에 다른 전공서, 자료 등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한국사 노트는 전근대와 근현대로 나누어서 2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필기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나중 되면 찾고 싶은 내용이 어디에 정리되어 있는지 찾느라 바빴고, 꽤 지저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단권화를 하니 정리하면서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느낌도 있었고 나름대로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수 때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방법을 달리하여 다독을 했는데요. 제가 읽은 한국사 전공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국사통론 :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죠. 단권화도 이 책을 베이스로 했고요. 생각보다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전근대부분은 다른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꽤 있기 때문에, 오래 된 책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챙겨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② 다시찾는 우리역사 : 한통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죠. 솔직히 버려도 될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전근대 뿐만 아니라 근현대 부분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꼭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10번 가까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③ 뿌샘 : 전 신뿌샘을 읽었습니다. 고대 부분은 읽지 않았고 고려부터 현대까지 읽었습니다. 고대는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읽지 않은 것은 아닌데 다른 개론서로 충분히 보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구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뿌샘은 양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사료를 제외하면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솔직히 책에 나오는 사료를 달달 외울 수는 없고, 그냥 눈으로 쓱 훑어본 뒤 만약 문제로 나왔을 때 익숙해질 정도로만 파악해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뿌샘도 중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현재 시험 추세가 뿌샘을 좀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나오고 중요하니까 될 수 있으면 단어, 개념, 문장들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다독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④ 그 외 : 그 외에 구특, 신평, 한길 등등 굉장히 많은 전공서들이 있지만 전 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읽는 게 좋긴 하겠지만 이것들을 읽지 않더라도 다른 책을 읽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책들을 좀 정확히 파악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기출분석이나 김종권 교수님이 알려주신 내용들은 단권화 노트에 정리해서 외우곤 했습니다.

⑤ 교과서 : 교과서는 초수 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동기들과 함께 출판사별 교과서들을 분석하는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전공서에는 안 나오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취합하여 단권화 노트에 정리하는 정도로 활용했고, 재수 때는 딱히 교과서를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체크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2) 동양사(중국사)

동양사도 마찬가지로 단권화를 했습니다. 베이스는 동개로 잡고 왼쪽 페이지에 정리한 다음에 그 외의 전공서나 자료 등은 오른쪽 페이지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작성했습니다. 단권화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재수 때는 단권화 노트를 거의 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동양사 노트는 너무 지저분하게 작성했기 때문에 가독성도 떨어지고 잘 들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수 때는 역시 다독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① 동양사개론 :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지만 솔직히 읽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가독성도 좋지 않고.. 그래도 가장 베이직한 책이다 보니 많이 읽긴 했습니다. 작년에 개정판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걸 사진 않았고 그냥 원래 보던 주황색 동개를 읽었습니다. 이것도 거의 10번 이상 읽은 것 같습니다. 근현대 파트로 갈수록 서술체계가 왔다갔다

하고 가독성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읽어야만 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②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 동개와 마찬가지로 꼭 읽어야하는 책입니다. 전근대 파트는 동개에 비해 소략하지만 동개에 없는 키워드들도 꽤나 등장하니만큼 서로 보완하면서 정리하고 기억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근현대 부분은 정말 디테일하고 한위중에만 나오는 개념들이 꽤 있기 때문에 열심히 외우고 또 외우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위중도 10번 이상 읽었습니다.

③ 그 외에 중국사와 관련된 여러 책들이 있지만, 전 읽지 않았습니다. 사실 위 두 책만 보는 것도 버거웠고, 여기서 나오지 않는 내용들은 어차피 대부분 틀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두 책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고 다른 분들은 본인이 원하시는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3) 서양사

서양사도 단권화를 했는데 서양사는 좀 특이하게 했습니다. 전 초수 때 서개를 한 번도 읽지 않았습니다. 아는 선배가 서총이 좋다고 해서 서총으로 단권화를 했습니다. 아마 그 선배는 서개를 읽은 상태에서 서총을 읽어보는 것도 좋더라는 뉘앙스였을텐데, 저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총을 사서 이걸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건 다 직접 손으로 써서 단권화 노트에 정리를 했는데, 서양사는 서총 2권을 워드로 작업해서 제본을 뜨고 거기에 기출분석 등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단권화를 하였습니다. 서총과 서개는 내용적인 측면이나 용어적인 측면에서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다보니 친구들과 서개와 서총을 서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하긴 했지만 분명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수 때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서 서개를 다독하였습니다. 처음 서개를 한 번 읽고, 두 번째 읽을 때 그 내용들을 서총 단권화 노트에 입히는 작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단권화 노트는 서브처럼 사용하였고 서양사 공부는 거의 서개 다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물론 올해 서강에 나온다는 반인륜범죄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그 건 거의 대부분 모르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전 서개만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개 내용이 결코 적은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꼼꼼히 보고 정확히 파악한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 4) 역교론

제가 제일 싫어하는게 역교론이었습니다. 봐도봐도 뭘 이야기인지 모르겠고, 외우려고 해도 잘 들어오지 않는 정말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이것도 단권화를 하긴 했는데, 녹색책과 남색책의 내용을 요약하여 워드로 작업한 후에 마찬가지로 이후에 덧붙일 자료들이나 내용들을 오른쪽 페이지에 입히는 방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종권 교수님 강의 중 갈색책 특강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내용을 추가로 정리하였었습니다.(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이번에 나온 갈색책 문제는 틀렸을 겁니다.) 사실 역교론은 다독이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말 안 외워지고 다 뜯 구름 잡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가장 버거웠던, 그리고 가장 자신이 없었던 과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시험에서는 생각보다 역교론 문제들이 쉽게 나와서 괜찮았던 것이지, 좀 어려웠다면 많이 틀렸을 것 같습니다.

### 5) 기타사

기타사도 마찬가지로 단권화를 했습니다. 사실 기타사는 내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름 지나고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양이 좀 되는게 일본사인데 김종권 교수님이 특강 때 만들어주신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타사 단권화는 동아시아사 교과서와 세계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기타사는 사실 교과서 이외의 범위는 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계사 교과서(저는 교학사를 봤습니다.)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저는 비상을 봤습니다.)에 나오는 내용들만 잘 정리해서 파악하고 계신다면 틀릴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3. 김종권 교수님 모의고사 강의(9-11월)

제가 초수 때는 모의고사 강의를 듣지 않고 그냥 계속 반복해서 단권화 노트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 결과는 어림도 없는 점수였습니다. 재수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본 결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전처럼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독을 열심히 하되 9월이 되면 모의고사 강의를 꼭 들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모의고사 강의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군데의 샘플강의를 듣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추천을 받은 결과 김종권 교수님의 강의를 저와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 9-11월 강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전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문제의 퀄리티도 좋았고 작년 문제까지 같이 주셔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첨삭서비스도 진행해주셔서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데, 임용시험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로 인해 오는 불안감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혼자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점들이 불안하기도 했는데, 모의고사 강의를 들으면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잘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던 부분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올해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모의고사 강의를 들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장에 가서 낯선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에 오는 불안감과 막막함을 모의고사 강의를 통해서 미리 연습하고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합격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 후배 예비선생님들을 위한 학습팁

1. 체력관리

임용시험은 장기 레이스입니다. 때문에 체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잘한 편은 아니지만 나름 꾸준히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원래 수영을 다녔어서 4월까지의 아침에 수영을 갔다가 독서실에 갔었습니다. 근데 5월부터 다니던 수영장이 사정상 쉬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5월~10월에는 집 근처에 있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7시 반~8시까지 헬스에 갔다가 9시~9시 반에 독서실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못 지킨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도 운동을 아예 하지 않는 것 보다는 조금이라도 하면서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휴식

전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술 마시는 걸 좋아해서 9월까지의 꼭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나가서 놀았습니다. 물론 더 노는 주도 있긴 했지만, 한 번도 안 논 주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9월 이후에는 불안해서 놀지는 못했습니다. 휴식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각자가 잘 생각해서 휴식 계획도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합격수기를 남겨봤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의 방법 등이 정답은 아닙니다. 각각의 생활습관, 성향 등에 따라 알맞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잘 고려하시고 올 한해 알차게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작성해주신 합격수기는 2020학년도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예비선생님들을 위하여 활용될 예정입니다.